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잔 조스트, 『성령 강림』(c1507).
목판에 유채, 독일 칼케 성 니콜라우스 성당.

† 오늘의 전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19-23 참조)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전교하고 봉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소서, 성령님!”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독서 사도 2,1-11 **제2독서** 1코린 12,3㉔-7,12-13 **복음** 요한 20,19-23

입당송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대안교육 담당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날마다 성령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순례객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또한 성령께 기도해야 하는 다소 애매한 상황을 의식하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개념이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호하고 애매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신비 자체가 오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예를 들어 천주성삼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듯이, 한 아기가 어머님 품에서 태어나서 보호받고 양육되며 자라날 때, 일정한 연령이 되면 철이 들고 모든 것을 깨닫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아기를 낳아 준 엄마, 기르고 양육한 엄마, 자라나면서 깨닫게 해 주는 엄마, 틀림없는 한 어머니의 모성애에 기반을 둔 기능에 의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분명 다른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아기가 철이 드는 과정, 깨닫는 과정을 거치는 완성의 의미를 기억하는 축일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구약의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역사를 통하여 성장해 왔으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성숙한 모습을 지녔지만, 아직 진리를 터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도 활동을 못하였던 것이고, 그들에게는 결단력과 행동할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힘이 세차게 바람처럼 불어와서 온 땅을 채우고, 사도들의 마음에 불꽃을 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힘이 세차게 우리에게 불어와 우리 마음에 불꽃을 일게 하여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하는 역동적인 활력을 말합니다. 그 활력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어두움의 나와 빛의 나를, 겁과 두려움과 망설임의 나와 용기와 신앙과 확신의 나를, 완전히 구별해 주며, 미래의 나에게 박차를 가하는 희망의 불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은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인들인 우리를 위한 것이며,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께 기도해야 하는 새로운 신앙인으로서의 각오를 다짐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로**



주교회의 시복시성위원회 담화문(요약)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첫 기념일을 맞이하여

지난 2014년 한 해는 참으로 뜻 깊은 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고, 그 방문의 여정 중에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식을 8월 16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하셨고, 교황께서는 124위 복자 기념일을 5월 29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복자 124위는 신앙을 목숨으로 지켜 내어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가장 귀중한 보물로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복자 124위는 신분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가난이 일상화되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형제애를 보여 주었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복음의 기쁨』, 198항)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황께서는 2015년 3월 12월 오후 5시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된 시복 감사미사 전에 특별히 한국 순례자들을 방문하시어 두 가지 애정 어린 훈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한국 순교자들의 삶’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순교 복자들의 희생과 인내를 기억하며 물질 가치에 안주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평신도들의 교회’, 곧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한국 교

회의 전통을 지속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선교사 없이 스스로 공부하여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기쁨을 알린 분들을 기억하며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첫 기념일을 맞이하며 그분들의 시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한국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사제의 시복, 하느님의 종 이벽 세례자 요한과 동료 132위의 시복,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의 시복,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와 동료 37위의 시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축일을 지내며 다시 한 번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깊이 간직하며 그 신앙의 빛나는 유산을 ‘지금 그리고 여기서’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한 그분들의 천상 도움으로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29일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사목단상



바보가 되고 싶다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교구장대리

김수환 추기경께서 김천지역에서 사목하실 때 만우절 날 어느 신자가 김 수환 신부님께 종부성사(병자성사)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신부님은 진짜로 알고 종부성사를 주려고 택시를 불렀다. 그때 거짓말을 한 신자가 김 신부님께 이실직고를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 사진과 함께 옆에 이렇게 쓴 글을 사진으로 나에게 보내 주었다. “예수님의 부활절이고 또한 만우절에 속임수에 넘어간 우리 김 스테파노 신부님과 기념 찰각(1956년 4월 1일). 속임수에 멋지게 넘어가 종부성사 주려고 차에 오르려 하는 스테파노 김 신부님은 바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서는 이때부터 바보가 되었는가 보다. 추기경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화두가 ‘바보’이다. 2008년도 초여름에 평화신문 기자가 추기경님과 인터뷰를 했다. “‘김수환은 〇〇이다.’에 들어갈 만한 적당한 단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추기경은 ‘김수환은 바보다.’라고 즉답했다. 의외의 대답이었다. 그 이유를 묻자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사랑과 진실 그 자체인 것을 잘 알면서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라고 말했다. 추기경은 그 뒤 ‘바보야’라는 제목으로 자화상까지 그렸다.”(평화신문 2009.2.22)

또 다른 바보를 소개하고 싶다. 노숙인의 주치의로 살고 있는 박용건 의사이다. “그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의사’였다. 그런데 그가 병원 내부 공사를 하는 중 성가복지병원에서 봉사를 하였다. 처음에는 두 달만 봉사하려 했지만 ‘계속 맡아주니 않겠느냐?’는 수녀님들

을 청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그러자 박 선생의 부인이 그에게 말했다. ‘의사는 어차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도 그래야 하지 않겠나.’ 강남의사 시절과 비교하면 그의 수입은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이 길이 내 길이란 걸 의심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성가복지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박 과장에 대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칭찬만 쏟아냈다. 병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수녀는 ‘박 과장님은 일 년에 몇 번씩 원장 수녀님 모르게 수십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고 간다.’고 말했다. 조수녀는 ‘박 과장님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으면 그 돈을 모두 내놓는다.’며 ‘이번에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3000만원도 전액 병원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2013년 그가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을 받을 때 갈멜수녀원 수녀들이 추천서를 썼다. ‘아프리카에는 슈바이처와 이태석 신부님이, 요셉의원에는 선우경식 선생님이, 저희에게는 박용건 선생님이 계십니다.’”(조선일보 2014.4.29)

부활시기를 보내고 있다. 부활의 신비, 빠스카의 신비를 살아야 할 시기이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쁘게 살아야 한다. 빠스카의 신비는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바꾸는 신비이다. 바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신비이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입니다.”(1코린 3,19)라는 말씀을 사는 중요하고 기쁜 시기이다. 나도 바보가 되고 싶다. 바보 추기경과 바보 의사들처럼. 그런데 바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너무 부끄럽다. **필문**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예수님을 웃기고 싶은 남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개그맨을 꼽으라면 스티븐 콜버트(1964~)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그콘서트라 할 수 있는 코미디 센트럴을 8년 간,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건 콜버트 쇼를 7년 간 성공리에 이끈 사람으로 에미상에 26회 노미네이트되어 아홉 번 수상하고 그래미상도 두 번 수상한, 그야말로 국민적인 코미디언입니다. 이런 엄청난 명성과 영향력으로 콜버트는 좋은 일을 여러 번 했지만, 가장 유명한 일화는 2010년 국회 불법이민대책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려고 외국 사람들을 데려와서는 아무 권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그맨이 국회의사당에서 정치인들에게 성경을 인용

한 것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콜버트는 열심히 교우 집안에서 11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톱스타로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콜버트는 촬영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주일을 지킵니다. “저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제 우스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유머감각이 없으시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더욱 열심히 봉사한다고 합니다. **필문**



스티븐 콜버트와 두 아들, 피터와 존

금주의 성인

5월 24일	성 도나시아노(순교자, 낭트, 289년), 성 로가시아노(순교자, 낭트, 289년) 성 빈첸시오(신부, 레겐스, 445년), 성녀 수산나(순교자, 2세기) 성녀 요안나(신약인물, 예수의 제자, 부인, 1세기경)
5월 25일	성 그레고리오 7세(교황, 1025~1085년),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수녀, 팻지, 1566~1607년) 성녀 막달레나(설립자, 수녀원장, 1779~1865년), 성 베다(신부, 교회학자, 역사가, 673~735년) 성 알델모(주교, 웨르본, 639~709년), 성 우르바노 1세(교황, 순교자, 230년) 성 제노비오(주교, 피렌체, 390년)
5월 26일	성녀 마리아 안나(동정녀, 은수자, 키토, 1618~1645년), 복자 에바(동정녀, 리에주, 1265년경) 성 엘레우테리오(교황, 순교자, 189년), 성 프리스코(순교자, 오세르, 272년경) 성 콰드라토(사도들의 제자, 129년경), 성 필리보 네리(신부, 설립자, 1515~1595년)
5월 27일	성 라눌포(순교자, 아라스, 700년), 성녀 레스티투타(동정순교자, 소라, 271년경) 성녀 모나셀라(동정녀, 590년경), 성 아우구스티노(선교사, 대주교, 캔터베리, 605년)
5월 28일	성 베르나르도(신부, 멘톤, 923~1008년), 성 제르마노(주교, 파리, 496~576년) 성 포디오(주교, 피렌체, 1002년)
5월 29일	성 막시마노(주교, 트리어, 347년), 성녀 보나(순례자, 피사, 496~576년) 성 사시니오(순교자, 397년), 성녀 테오도시아(동정순교자, 콘스탄티노플, 745년)
5월 30일	성녀 잔다르크(동정순교자, 아르크, 1412~1431년), 성 펠릭스 1세(교황, 순교자, 274년) 성 페르디난도 3세(오아, 카스티야, 1199~1252년)

■ 위해한인성당 설립 10주년 기념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16일(토) 오후 4시에 중국 위해한인성당 설립 1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시고, 47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 청양한인성당 설립 10주년 기념 견진성사



대주교님께서는 5월 17일(일) 오후 4시에 중국 청양한인성당 설립 10주년을 맞아 58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21주간, 2015. 5. 24.~30.>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욥 15-19장	20-24장	25-28장	29-31장	32-34장	35-37장	38-42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욥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의로움과 그런 자신을 부당한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 하느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만을 앞세운 이기적 판단이요 오만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하느님은 '소문으로 들어 알아 온 분'(42,5 참조)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한다. '소문으로 알게 된 하느님'은 주체로서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단지 간접적으로 체험된 하느님일 뿐이며, 실제로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하느님과의 진정한 만남'이야말로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근원적 체험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어떤 마음으로?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25일(월) 11:00 도량성당		5월 26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 종후원회 월례미사	5월 25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5월 27일(수) 10:00 죽도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5월 26일(화) 14:00 계산성당		5월 27일(수) 14:00 토마스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5월 27일(수) 10:00 평화성당	-	-

대리구 소식

‘봉헌생활의 해’ 기념 북토크

‘궁지영의 수도원 기행2’ 못다한 이야기

일시: 5.27(수) 19:30

장소: 월성성당 대성전

문의: 3대리구청, 641-5678

성소 | 피자

1차 성소 식별 피자

기간: 6.6(토)~7(일)

장소: 툇정포교베네딕도회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6.7(매달 첫번째 주일) 11:00

장소: 서울 성북동 본부

문의: 조대운 신부, (010)3777-4688

선교사제 성소 문의는 언제나 환영

2박 3일 무료 피자(작은 예수회)

기간: 5.29(금)~31(일)

장소: 가평 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0)2646-0583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자

기간: 6.12(금)~14(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사수동)

주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

대상: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신자

문의: 한국CLC, (02)333-9898

교육 | 모집

베네딕도 청년성가단 4기 모집

일시: 매주 월 19:30, 베네인

대상: 교회음악, 합창에 관심있는 청년들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원,

(010)5918-3014

스칼라 중창단 모집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대상: 남녀 청년(오디션)

내용: 발성, 찬양, 전례

신청: (010)9056-9005

이관배 신부의 신구약 특강(9개월코스)

기간: 7.17(금) 17:00~19(일)

장소: 미리내성지 내 묵상의집

강의: 1차 모세오경(신구약9차코스)

회비: 10만 원(각 회당)

문의: (010)4762-9372(문자접수가능)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일시: 7.25(토)부터 총4차, 1박 2일

장소: 바틀로교육센터(흥피 참조)

주제: 주님의 숲에서 노~을자

인원: 차수당 30~40명

(본당별, 선착순)

문의: 783-9817 / (010)9868-9817

청년 프란치스칸 여름캠프

기간: 7.30(목)~31(금)

신청마감: 6.30(화) / 1만 원

문의: 재속프란치스코회,

(010)3512-0914

김길수 사도요한 교수와

함께하는 순례

일본 성지순례 58만 원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4박 5일)

문의: 천주교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확대 앞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안지환 병원
신부영남내과
영남의과대학교수 원장 권영진 (안드레아)
☎ 053)656-753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이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대표전화 260-7777 팩스번호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장옆(구.달성군청지리)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사거리

스피치 토크의 가장 핵심이제!
Speech Kim 스피치킴 교육
리더쉽&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사 · 취업 면접, 화술 · 화법
대상 :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원장 김민지(사비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행사 | 모임

고산성당 자선 바자

기간: 5.30(토) 10:00~31(일) 17:00
내용: 본당 설립 30주년(2017년) 기념 준비 및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품목: 먹거리, 생필품, 풍기인건 등
문의: 고산성당, 795-2261

고성기도회 설립 30주년 찬양의 밤

일시: 6.1(월) 19:00
장소: 고성성당 대성전
강사: 정기모(요한보스코) 신부
미사 및 안수: 손종현(요한) 신부
문의: 고성성당, 352-1412

가난한 이 아픈 이에게 발현한 바뇌기도 율례모임

일시: 5.28(목), 삼덕성당
14:00 기도 / 15:00 미사

마태25 자선 바자회

가난한 이웃과 동행하기위한 잔치에 초대
일시: 5.31(일) 10:00~16:00
장소: 경산어버이성경학교(임당역3번출구)

교육 | 모집

2015년 상반기 말씀잔치 개최

일시: 6.13(토) 9:00~, 교육원 다동 대강당
주제: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신청: 5.24(일)까지 / 계좌: 대구은행

508-11-836412-0 (한상숙) / 1만 원
주최: 교구 성서사도직담당, 250-3082

28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야간) 개설

기간: 6.18~7.16(매주 목, 5주간)
시간: 19:00~22:30 / 회비: 10만 원
장소: 3대리구 감삼성당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
문의: 교구 가정담당, (010)6499-3114

2015년 제4차 비다누에바 연수

기간: 6.26(금)~28(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20-35세 미만 미혼 청년
신청: 정혜진 올리안나, (010)4527-0400
주최: 교구 청년국 비다누에바

6월 한티 일일 피정

일시: 6.1(월) 10:00~17:00
주제: 자녀와 봉헌
지도: 권민자 수녀, 여영환 신부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3차)

일시: 5.28(목)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테레사]관 3층 테레사홀

주제: 비수술적 재활치료
강사: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국비지원 무시험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65세미만 모든 신자 학력, 남녀 제한 없음
주간: 월~금 / 야간: 월,수,금,토(개강6.28)
특전: 교육비 국비지원(식대/차비추가지원)
문의: 대가대장례지도사교육원,
555-4404

채용 | 안내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직원 채용

업무: 법인 관리, 학교복음화담당 업무
자격: 교리교사 경력, 운전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
학력증명서, 교적·자격증 사본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5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교구 법원 공식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동희(요셉), 김동춘,
최영기(알베르도)
문의: 253-9550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통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녜스) 010-5048-7739

31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미소나라 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구스다운/커버 이불 / 침구류
국내/국제특허 성당방석 / 단체서운품
CARITAS
HAN KWANG 한광 안젤라 권순화
010-9357-9988

스페인 & 포르투갈 성씨순례
출발일: 9월 2일 (12박13일)
일본(나가사키) 성씨순례
출발일: 7월 27일 (3박4일)
T. (053)253-3399
조 철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주)성씨여행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종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